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 현대불교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080-023-4000

명예회장 노태환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창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창간 2540년(서기 1996년) 2월 14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학·현대화·세계화

## 이렇게 들었다

4·11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의 불교계 접촉이 잦아지고 있다. '불교 표방'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차이에 참된 교우, 사람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마땅히 지혜 많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나가서는 부드러운 안색이 되고 들어와서는 기쁨을 함께 하여 서로 존경해 아버지인 듯 열인 듯 대하며, 상대를 제 불교 다름없이 여겨 마음으로 늘 친절하게 지내야 한다. (출요경)

여기저기 빗을 구해도 저와 같은 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는 차라리 울로 선을 뒤물지언정 어리석고 악한 자를 막아야 할 도를 하라. (사분술)

차라리 적이나 백정과 친구가 될지언정 그릇된 말을 하는 악한 견해를 지닌 사람과는 잠시도 동거하지 말라. (대법유타라니경)

현자가 사람들을 감화함은 향을 가까이하는 것과 같다. 지혜에 머물면서 선을 익혀 영동이 깨끗하고 향기롭게 해 준다. (법구경)

선지식은 네가지 부류가 있으나, 첫째는 싸우려는 친구를 만류함이고 둘째는 악지식을 따르려하는 것을 간해 그치게 함이고 셋째는 일하지 않으려는 것을 가르쳐서 밀게 함이다. (육방예경)

어리석은 자와 같이 종사

참된 교제

참된 교제는 네 부류가 있다. 첫째는 마음 속에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도 겉으로는 억지로 벗인척 하는 사람이다. 둘째는 그 앞에서는 좋게 말하지만 배후에서는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다. 셋째는 다급한 일이 있을 때 그 앞에서는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듯 가랑지만 배후에서는 기뻐하는 사람이다. 넷째는 겉으로는 친한 체하지만 속으로는 해칠 음모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육방예경)

도리에 맞지 않는 모양에 참여하지 않고, 항상 바른 가르침의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법집요승경)

벗 사이에는 세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 첫째는 과실을 보면 서로 깨우쳐 충고함이고 둘째는 공박되는 일을 보면 같이 따라서 기뻐함이고 셋째는 불행이 있을 때 서로 버리지 않음이다. (인과경)

관련기사 3면

# 종교편향 규탄 전국 확산

## 승·재가 한 목소리... 해인총림 산중회의 '교권수호 천명'

김영삼대통령의 국방부 중앙교회 예배참석으로 빚어진 종교편향에 대한 교계의 공개사과요구에 불응하고 이렇다할 답변이 없는 가운데 지역불자들이 대통령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교계의 대통령종교편향 규탄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대전지역에서 수행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스님들의 모임인 조계종승가회 소속 회원스님들은 "대통령이 자신의 종교활동을 위해 타인의 종교활동을 방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종교편향 개발을 막기위한 사제집수참구(042-253-7854)를 개설, 종교편향정책의 시정에 들어갔다.

동안거 결재중인 해인사 총



◇종교 편향정책중단과 교권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조계사 앞에 김대통령의 공개참회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비대위는 앞으로 전국 1천7백여개 사찰에 현수막을 설치할 방침이다. (사진=고영배 기자)

법도 지난 2일 이례적으로 산중회의를 열고 타종교인의 교권을 유린한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해인총림의 대통령공개사과 촉구는 산중에서 수행중인 승자들이 교권수호를 위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교계의 요구에 정부 여당은 김용환(신한국당)대표, 이상호 국방장관등을 내세워 사태의 본질을 축소하며 조 기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해결의 단서지인 청와대가 국무부담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통령종교편향 시정을 요구하는 불자들의 대응이 조직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종교편향정책중단과 교권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비상대책위(위원장 효림스님)는 7일 조계종 총무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시일내

에 대통령의 공개참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대한국당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비대위는 또 8일 김대통령의 공개참회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조계사에 달고 3일초 범불교도 대중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관련기사 2·3면

**국방부원광사 방문**  
 월주스님, 장병위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7일 김영삼 대통령의 국군중앙교회 예배전과 관련, 국방부 원광사를 방문, 군병사 및 불자 장병들을 위로했다.

월주스님은 "대통령의 교회예배를 계기로 불자장병들은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 "고속철 경주통과 즉각 취소" 촉구

### 종교·예술·여성등 각계대표 '결의문' 채택

경부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 여성계 대표들이 도심통과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13면)

한국불교개개회의 등 불교계 18개 단체와 한국고교학회 등 관련 17개 단체가 주축이 되어 결성한 "고속철도 경주통과 반대운동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영) 주최로 열린 각계도자 간담회의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경주는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겨레와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임을 강조하고 정부에 대해 △도심통과 계획의 즉각 취소 △경주읍을 역사문화도시로 가꾸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대책의 수립을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월주 조계종총무원장, 김원룡 크리스천아카데미사장, 안호상 대동고교령, 최근덕 성균관장, 한광도 천도교총무원장, 류달영 성천문화재단이사장, 유승국 진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손봉호 경실련총동맹의장, 안병우 진화재위위원회위원장, 홍라희 호암미술관장 등 30여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또 각자 소속된 분야에서 경주도심통과반대 여론조성과 개선방안 제시에 최선을 다할 것과 각계 저명인사 3백명의 참여를 권유,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18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경주도심통과 반대운동에 참가한 가운데 각계대표들이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경주도심통과를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편 회의장 앞에서는 경주에서 버스권으로 상경한 고속철도 경주확장역사사수 시민단체인(총동회장 김성수 경주시의원) 소속회원 37명이 고속철도 경주통과를 정부안대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조계종 승가대학령 확정

### 학원정원 12명이상 설립 인가... 이달말 입법예고

개발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가대학이 종단의 공공교육기관으로 전환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스님)은 지난 8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5차 승가교육 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승가대학(정원)령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승가대학령에 따르면 교육원이 승가대를 지향하고 지정된 승가대는 반드시 설립인가를 신청, 교육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승가대 지장 요건으로 학원정원 12명이상 총학인정인 50인 이상으로 정해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승가대는 전문화립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원은 이같은 내용의 승가대학령을 총무원회에 상정, 빠른이달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승가교육 개혁추진위는 행자교육개선을 위해 계단위원, 교수사, 교육위원들이 참가하는 연석회의를 신설, 행자교육 개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신도증 교부시작

조계종, 등록진행 활발

조계종포교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도증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8일 현재 전국 13개 본사에서 1만여명의 신도가 등록서류를 포교원에 제출했다. 포교원은 이달말경 신도증 교부를 시작한다.

신도증을 휴대한 신도는 조계종단의 권량표 징수사할 무료입장 및 중단시설을 무료 또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법공양페이지 포함 20면 발행**

역대정권 종교 편향 정책 2면  
 석가모니 탄생지 공식 선포 14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상품권의 베스트셀러 금강제화 상품권

# 선물은 역시 금강제화 상품권입니다.

- 변하지 않는 선물의 대명사
- 최고만을 고집하는 토탈패션
- 적정가격대의 다양한 선택
- 서울에서 제주까지 편리한 사용

핀드포바 비제바노 매장에서도 구입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탈패션의 名家  
**금강제화**

상품권 문의전화  
 ● 서울 : 02) 567-9292 / 02) 370-9292 / 02) 538-2442 / 02) 776-4466 ● 부산 : 051) 246-9392 / 051) 241-4333-4 / 051) 246-0345 / 051) 245-7928 ● 대전 : 042) 282-4888 / 042) 282-8888 / 042) 255-8231 ● 대구 : 053) 422-9292 / 053) 421-6596 / 053) 421-3692 ● 광주 : 052) 227-9292 / 052) 226-4337 / 052) 222-1252 ● 울산 : 052) 44-9292 / 052) 45-3117 ● 인천 : 032) 762-9888 / 032) 859-8888 ● 수원 : 031) 42-2488 / 031) 251-3437